

독서수업  
지도안  
학생용

초등학교 6학년

# 책을 읽고 생각을 넓혀요



문은아 글 | 전명진 그림 | 웅진주니어 | 60쪽

독서 준비	읽을 책을 정하고 책 내용 예측하기
독서	책을 깊이 있게 읽기
독서 후	생각 나누기, 독후활동지, 정리하기



## 표지 탐색하기

이름 :

💡 <이름 도둑>을 읽기 전에 책 제목과 표지를 자세히 살펴봅시다.

1) 책 제목 ‘이름 도둑’을 보고, 떠올린 생각은 무엇인가요?

⇒

2) 앞표지에 있는 그림은 어떤 모습인가요?

⇒

3) 책 뒤표지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책의 내용을 예상해 봅시다.

오월 그날이 다시 돌아올 때마다

이름 도둑, 네 이름을 불러 줄게. 잊지 않을게.

㉠ 흥흥한 소문이 돈 지 사흘째.

준호네 반 아이들은 하나둘 이름을 도둑맞는다.

드디어 준호 차례! 준호는 남들처럼 다음 날이면

이름이 돌아올 거라 철석같이 믿고 이름 없는 하루를 즐긴다.

하지만 ㉡ 하루 이틀이 지나도 이름이 돌아오지 않자

직접 이름 도둑을 찾아 나서는데…….

① 윗글에서 밑줄 친 ㉠의 ‘흥흥한 소문’이란 무엇인지 준호네 반에 생긴 일을 바탕으로 짐작해 보세요.

⇒

① 윗글에서 밑줄 친 ㉡으로 보아, 이 책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나요?

⇒

## 어휘력 쑥쑥 키우기 (1)

이름 :

💡 다음은 <이름 도둑>에서 발췌한 문장들입니다.

- (가) · 희멀건 얼굴에 목 늘어난 파란 티셔츠와 빛바랜 녹색 반바지라니, 흑백 사진 속에서 튀어나온 아이 같았다.
- 어둠 속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전학생은 신출귀몰했다.
  - 전학생과 헤어지면서 슬쩍 떠봤다. 혼자 두고 오기가 그랬다.
  - 할아버지도 자꾸 고꾸라지는 바람에 우리 걸음은 더디기만 했다.
  - 파란 티셔츠에 녹색 반바지가 꼭 금방 벗어 놓고 간 것처럼 생생했다.
- (나) · 지민이 주위에 아이들이 바글거렸다. 지민이 물건들도 ㉠    대접을 받았다.
- 이들의 ㉡     를 바라던 아버지가 오래 살았던 온갖 것들의 이름을 따와 지은 이름이었다.

1) (가)의 밑줄 친 각 낱말 뜻으로 알맞은 것을 아래에서 골라 번호를 쓰세요.

- 희멀겁다 : (     )     · 신출귀몰하다 : (     )     · 떠보다 : (     )
- 더디다 : (     )     · 생생하다 : (     )

- ① 남의 속뜻을 눈치치 알아보다.
- ② 시들거나 상하지 아니하고 생기가 있다.
- ③ 어떤 움직임이나 일에 걸리는 시간이 오래다.
- ④ 희고 깨끗하게 맑지 아니하고 약간 흐린 듯하다.
- ⑤ 그 움직임을 쉽게 알 수 없을 만큼 자유자재로 나타나고 사라지다.  
귀신같이 나타났다가 사라진다는 뜻에서 나온 말이다.

2) 다음 뜻을 참고하여 (나)의 빈칸 ㉠, ㉡에 각각 들어갈 표현을 쓰세요.

- ㉠    : 나라의 보배가 될 정도로 매우 중요한 사람이나 물건 따위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     : 병 없이 건강하게 오래 삶.

## 어휘력 쑥쑥 키우기 (2)

이름 :

💡 다음은 <이름 도둑>에서 발췌한 문장들입니다.

- (가) ① 다음은 학원 빼먹기다. 완벽한 (        )를 위해 학원 가방을 가지러 집으로 갔다.  
 ② 구부정하게 앉아 (        )를 놀리는 할아버지가 보였다. 콩 하고 힘을 줄 때마다 좁쌀만 한 나무 조각이 튀어 올랐다.  
 ③ 범인은 가까운 데 있는 법이다. 반 아이들을 (        )에 두고 한 명 한 명 노려보았다. 전학생이 레이더에 딱 잡혔다. 나는 아직 그 아이 이름도 모른다.  
 ④ “몰라. 나도 진짜 이름을 미치게 알고 싶은데 생각이 안 나. 그래서 온갖 이름을 찾아 떠돌다가 너희 학교까지 온 거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녀석이 흐느꼈다. 범인의 (        )치고는 싱거웠다.
- (나) 도깨비불에 ㉠홀린 것처럼 허겁지겁 전학생을 뒤쫓았다. 달빛 아래 ㉡서늘한 무덤들이 보였다. 작은 봉분 앞에 전학생이 앉아 있었다.

1) 위 문맥과 아래에 제시된 뜻을 고려할 때, (가)의 각 빈칸에 들어가기에 알맞은 말을 아래에서 골라 쓰세요.


- 용의선상 : 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는 상태.
- 전각도 : 나무, 돌, 금속 따위에 인장이나 글자를 새기는 칼.
- 자백 : 자기가 저지른 죄나 자기의 허물을 남들 앞에서 스스로 밝히는 고백.
- 알리바이 : 범죄가 일어난 때에,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범죄 현장 이외의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을 주장함으로써 무죄를 입증하는 방법.

2) (나)에서 밑줄 친 ㉠, ㉡의 기본형을 쓰고, 그 뜻을 국어사전에서 찾아 쓰세요.

순서	기본형	뜻
㉠		
㉡		

## 독해력 기르기 (1)

이름 :

 다음 <이름 도둑>에서 발췌한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전학 온 친구를 소개하겠다. 자, 이름부터 말해 봐.”

담임 선생님은 한 아이의 등을 살짝 밀었다. 나는 전학생을 꼼꼼히 보려고 안경을 당겨 썼다. 희멀건 얼굴에 목 늘어난 파란 티셔츠와 빛바랜 녹색 반바지라니, 흑백 사진 속에서 튀어나온 아이 같았다.

“요주의 인물이군.” 나는 눈을 가늘게 뜨고 중얼거렸다. 그사이 전학생이 꾸벅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마쳤다.

“저기 앉아라.” 담임 선생님이 내 뒤의 뒷자리를 가리켰다. 전학생이 내 옆을 지나갔다.

“재, 이름이 뭐래?” 앞에 앉은 민수한테 슬쩍 물어봤다. 민수도 모르겠다는 듯 어깨를 으쓱했다. 이상하다. 분명 들었는데 이름이 기억나지 않았다.

(나) 민수가 그 아이 이름이 적힌 물건들을 뒤졌다. 지우개에 쓰여던 이름이 흔적도 없이 지워졌다. 연필, 공책, 심지어 교실 뒤에 걸린 그림에 붙은 이름도 감쪽같이 없어졌다. 이름을 알 수 있는 흔적들이 몽땅 사라졌다. 담임 선생님도 그 아이를 지목하려다 그만두었다. 아이 한 번, 출석부 한 번 보더니 고개를 가웃했다. 출석부 이름까지 사라진 거다.

“자꾸 깜박하네. 출근중 때문인가.” 담임 선생님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아이들은 달랐다. 이름 도둑한테서 자기 이름을 지켜야 했으니깐!

1) (가)에서 ‘나’(준호)가 ‘전학생’을 보면서 생각한 첫인상은 어땠는지 파악하여 쓰세요.

⇒

2) (나)에서 벌어진 일과 그에 대한 등장인물의 반응을 정리해 봅시다. 각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그 아이 이름이 적힌 □□□과 교실 뒤에 걸린 그림에 붙은 이름 등 이름을 알 수 있는 □□□이 몽땅 사라졌으며 □□□ □□□까지 사라졌음.



담임 선생님 : □□□ 때문인지 자꾸 깜박한다며 □□□□ 않게 여겼음.  
아이들 : □□ □□한테서 자기 □□□□을 지켜야 했음.

## 독해력 기르기 (2)

이름 :

💡 다음 <이름 도둑>에서 발췌한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하지만 그 명성은 한나절을 넘기지 못했다. 지민이가 이름을 되찾은 날, 바로 다른 아이가 이름을 도둑맞았기 때문이다. 과연 두 번째 피해자도 이름을 되찾을까! 아이들은 이게 또 궁금했다. 다음 날, 궁금증은 저절로 풀렸다. 두 번째 아이는 김명수였다.

도둑맞은 이름은 하루가 지나면 다시 찾을 수 있다. 열 번째 대상자가 나올 때까지 규칙은 그대로 지켜졌다. 어느새 아이들은 자기 차례를 은근히 기다리게 되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름이 사라지면 좋은 게 많았다. 출석을 안 부르니까 땡땡이도 가능했다. 학원도 빠질 수 있었다. 숙제 검사도 건너뛰었다.

(나) 예외는 없었다. 내 차례 전까지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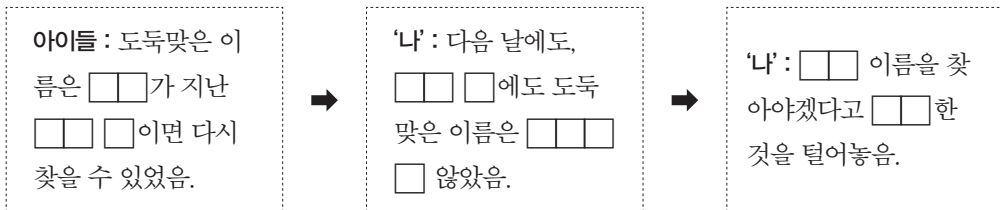
뭔가 어긋나기 시작했다. 다음 날에도 도둑맞은 이름은 돌아오지 않았다. 나는 이름 없는 하루를 더 보냈다.

뭐, 둘째 날까지는 괜찮았다. / “별써 삼 일째야. 이러다 영영 이름을 못 찾으면 어쩌냐.” 민수가 앞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다) 학원 빠지고 노는 것도 시시해졌다. 언제까지 김수한무로 불릴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방법은 하나뿐이야. 내가 직접 이름을 찾아야겠어.” 나는 어젯밤 결심한 걸 털어놓았다. 공룡 뼈부터 유명 배우의 콧밥까지, 세상에 괴상한 도난품은 많고 많다. 이름이라고 딱히 다를 것도 없다.

1) 윗글에서 ‘도둑맞은 이름’으로 인해 벌어진 일입니다. 각 빈칸을 알맞게 채우세요.



2) (가)에서 ‘아이들’이 이름을 도둑맞을 자기 차례를 기다리게 된 이유를 파악하여 쓰세요.

⇨

### 독해력 기르기 (3)

이름 :

💡 다음 <이름 도둑>에서 발췌한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이름 도둑이라니?” 녀석이 내 손을 뿌리치며 모르는 척했다.

“어디서 발뺌이야? 이렇게 증거가 있는데!” 나는 이름표들을 빼앗아 녀석한테 들이밀었다. 모양만 이름표일 뿐, 아무 이름도 없었다.

“미안해, 그냥 하루만 갖고 있다가 돌려주려 했어. 다른 애들처럼 딱 하루만…….” 녀석이 풀 죽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 이름은 돌려주지 않았잖아!” / “김준호, 네 이름은 웬지 마음에 들었어. 진짜 내 이름 같았지.” / “그렇다고 남의 걸 훔치면 어떡하냐! 원래 네 이름은 어찌고?” 민수가 대신 따져 주었다.

“몰라. 나도 진짜 이름을 미치게 알고 싶은데 생각이 안 나. 그래서 온갖 이름을 찾아 떠돌다가 너희 학교까지 온 거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녀석이 흐느꼈다. 범인의 자백치고는 싱거웠다. 드디어 이름 도둑을 잡았는데 신나지 않았다.

이름 없이 지낸 날들이 떠올랐다. 닳새 동안 좋았던 건, 딱 하루였다. 나중에는 내가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았다. 조마조마하고 애가 났다. 그런데 녀석은 오랫동안 이름이 없었다니, 불쌍한 것도 같았다.



1) 윗글에서 ‘이름 도둑’이 한 말을 바탕으로 ‘이름 도둑’이 한 일을 순서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쓰세요.

진짜 이름을 알고 싶은데 생각이 안 나서 온갖 이름을 찾아 떠돌아다니다 ‘준호’네 학교에 옵니다.	➔	다른 아이들의 이름을 훔쳐서 _____ _____ _____	➔	김준호란 이름은 _____ _____ _____
--	---	---	---	----------------------------------

2) 윗글에서 ‘나’(준호)는 이름 없이 지내 보니 어떻다고 느꼈는지 파악하여 쓰세요.

↳



## 독해력, 사고력 기르기 (1)

이름 :

💡 다음 <이름 도둑>에서 발췌한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너 말고도 이름 없는 혼령이 또 있어?”

“그럼. 이 무덤들을 봐. 이름을 찾아 떠도는 혼령들이 얼마나 많은데.”

주위를 둘러보았다. 야산에는 이름 없는 봉분들이 제법 있었다. 하나같이 1980년 5월에 생긴 것들이었다. 도대체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단순한 살인 사건이 아닐 수도 있다. 뭔가 거대한 게 숨겨져 있다. 파고들수록 자꾸 엉덩이가 간질간질했다.

“이름 없는 혼령들은 내내 잠들어 있다가 이팝꽃이 피면 깨어나. 참 이상해.”

(나) “안 되겠다. 빨리 이름부터 찾아.”

조바심이 났다. 김준호. 내 이름을 걸고 본격 수사를 시작해 보자.

우리 셋은 피시방부터 갔다. 먼저 1980년에 실종된 사람들 중에서 전학생을 찾아보았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광주에서 무서운 학살이 있었다고 했다. 아마 전학생도 이때 죽어 혼령이 되었나 보다. 누가 그랬을까? 왜?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까? 전학생이 이름을 찾으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을까?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1) 윗글에 나타난 ‘1980년 5월 광주’에서 있었던 일을 정리해 봅시다. 각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 시기 : 1980년 5월에 □□ 없는 봉분들이 □□에 제법 생겼음. ⇨ 이름을 찾아 떠도는 □□□이 많음.

· 장소 : 광주에서 무서운 □□이 있었고, □□된 사람들도 많았음. ⇨ □□□도 이때 죽어 혼령이 되었다고 추측함.

2) 윗글에서 말하는 ‘1980년 5월 광주’에서 있었던 사건에 대하여 조사해 보세요.

· 5·18 민주화운동

⇨

## 독해력, 사고력 기르기 (2)

이름 :

💡 다음 <이름 도둑>에서 발췌한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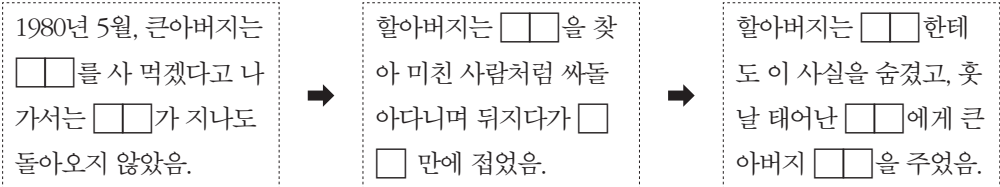
(가) 5월 어느 날, 큰아버지는 하드를 사 먹겠다고 나가서는 하루가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다. 할아버지는 아들을 찾아 몇 날 며칠을 미친 사람처럼 싸돌아다녔다. 광주에서 화순, 순천까지 이 잠듯이 뒤졌지만 소용없었다.

(나) 반년 만에 찾아다니는 일도 접었다.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사라졌지만 숨죽이던 때였다. 설마 아이에게까지 해코지를 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다. 그저 기다리는 도리밖에는 없었다. 나갔던 것처럼 그렇게, ‘아버지, 좀 늦었죠?’ 하며 큰아버지가 돌아올 것만 같았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지금껏 문 한번 못

잠갔다고 했다. 그해가 바로 1980년이였다.

할아버지는 훗날 태어난 아빠한테도 이 사실을 숨겼다. 그리고 더 훗날 태어난 손자에게 큰 아버지 이름을 주었다. 할아버지는 ‘준호야.’ 하고 나를 부를 때마다 큰 아버지를 부르는 것 같아 좋았다고 했다.

1) 윗글에서 있었던 일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각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2) 윗글을 바르게 이해한 반응을 골라 번호를 쓰세요.

- ① ‘나’(준호)의 큰아버지는 1980년 5월, 민주화운동에 참여하여 희생되었다.
- ② ‘나’(준호)와 아빠는 지금껏 큰아버지의 일을 모르고 있었다.
- ③ ‘나’(준호)의 할아버지는 민주화운동 때문에 큰 아버지를 잃었다고 원망하고 있다.

## 독해력, 사고력 기르기 (3)

이름 :

💡 다음 <이름 도둑>에서 발췌한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1980년 5월, 무명씨…….” 묘비를 읽는 목소리가 갈라졌다. 할아버지가 봉분 앞에서 힘 없이 주저앉았다. 수북하게 떨어진 꽃잎이 풀썩 일었다 가라앉았다. 할아버지가 짐승처럼 울었다. 꽃이 다 저 버린 이팝나무 가지에서 부엉이가 부—부우—따라 울었다. 며칠 뒤 봉분 아래에서 아이 시신이 나왔다. 어른들 사이로 슬쩍 전학생을 봤다. 파란 티셔츠에 녹색 반바지가 꼭 금방 벗어 놓고 간 것처럼 생생했다.  
“준호야, 아이고 준호야!”

(나) “어때? 이름 도둑! 진짜 이름 찾아서, 진짜 좋지? 이제 편히 자.”

나는 전학생한테 마음속으로 말을 걸었다. 김. 준. 호. 할아버지가 힘주어 새긴 이름이 묘비에 선명했다.

아빠가 다가와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엄마는 돌아서서 눈물을 닦았다. 할아버지가 향을 피워 향로에 꽂았다. 불꽃이 사그라지고 실처럼 가는 연기가 나왔다. 나는 하늘로 올라가는 연기를 올려다보았다. 이팝나무 가지에 푸른 잎이 제법 돌아나고 있었다. 그 순간 바람이 멈췄다. 소리도 멈췄다. 아주 잠깐 시간도 멈춘 것 같았다. 이어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준호야, 나 잊지 마. 이름 없는 혼령들을 잊지 마.’

김준호가, 김준호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1) (가)에서 ‘할아버지’가 무명씨의 봉분 앞에서 짐승처럼 울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파악하여 쓰세요.

⇨

2) (나)에서 ‘나’가 ‘이름 도둑’에게 전할 말을 다음 조건에 맞게 써 보세요.

- ‘나’와 ‘이름 도둑’의 관계가 드러나도록 쓴다.
- ‘이름 도둑’의 심정을 헤아려서 쓴다.

⇨



A series of horizontal red lines for writing, spanning the width of the page.



## 정답과 해설

3쪽	<p>1) (예시답안) 물건이나 돈이 아니라 이름을 훔치거나 빼앗는 도둑이 있다니 신기하고 궁금하다.</p> <p>2) (예시답안) 안경을 쓴 남자아이가 흰 꽃이 가득 핀 숲속에 있는데, 아이의 몸은 초록색이고 하얀 나뭇가지와 나뭇잎이 머리부터 등까지 드리워져 있다.</p> <p>3) ① (예시답안) 정체를 알 수 없는 도둑이 나타나 이름을 훔쳐 간다는 것.          ② (예시답안) 준호가 직접 이름 도둑을 찾아 나선 뒤 겪는 일들이 나올 것이다.</p>
4쪽	<p>1) 희말걸다 : ④, 신출귀몰하다 : ⑤, 떠보다 : ①, 더디다 : ③, 생생하다 : ②</p> <p>2) ㉠ : 국보급, ㉡ : 무병장수</p>
5쪽	<p>1) ① 알리바이, ② 전각도, ③ 용의선상, ④ 자백</p> <p>2) ㉠ 기본형 : 홀리다, 뜻 : 무엇의 유혹에 빠져 정신을 차리지 못하다.          ㉡ 기본형 : 서늘하다, 뜻 : 갑자기 놀라거나 무서워 찬 느낌이 있다.</p>
6쪽	<p>1) 전학생이 흑백 사진 속에서 튀어나온 아이 같았고, 요주의 인물이라고 생각했다.</p> <p>2) 물건들, 훈장들, 출석부 이름 / 담임 선생님 : 촌근증, 대수롭지 / 아이들 : 이름 도둑, 이름</p>
7쪽	<p>1) 아이들 : 하루, 다음 날 / '나' : 삼 일째, 돌아오지 / '나' : 직접, 결심</p> <p>2) 이름이 사라지면 출석을 안 부르니까 땡땡이도 가능했고, 학원도 빠질 수 있었고, 숙제 검사도 건너뛰는 등 좋은 게 많았기 때문이다.</p>
8쪽	<p>1) 하루만 갖고 있다가 돌려주었음. / 웬지 마음에 들었고 진짜 자기 이름 같아서 며칠째 돌려주지 않았음.</p> <p>2) 딱 하루만 좋았고, 나중에는 자신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았으며 조마조마하고 애가 났다.</p>
9쪽	<p>1) 시기 : 이름, 야산, 훈령들 / 장소 : 학살, 실종, 전학생</p> <p>2) (예시답안)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당한 1979년 10·26 사태 이후, 비상계엄령이 확대되면서 1980년 5월 18일에 전남 광주에서 시민들이 계엄령 철폐와 전두환 퇴진을 요구했던 민주화 운동이다. 전두환 정권과 계엄군의 무력 진압으로 많은 사상자가 났다.</p>
10쪽	<p>1) 하드, 하루 / 아들, 반년 / 아빠, 손자, 이름</p> <p>2) ②</p>
11쪽	<p>1) 1980년 5월에 실종된 아들 준호의 묘를 찾아서</p> <p>2) (예시답안) 큰아버지, 이제 진짜 이름을 찾으셨으니 더는 전학생이라고도, 이름 도둑이라고 부르지 않을게요. 오랜 세월 응어리진 마음을 풀고 이제 하늘나라에서 편히 쉬세요. 죄 없이 죽어간 이름 없는 훈령들을 잊지 않고 기억할게요.</p>



# 웅진주니어

값 9,500원



ISBN 978-89-01-22347-6  
ISBN 978-89-01-03863-6(세트)



KC 마크는 이 제품이  
공통안전기준에 적합  
하였음을 의미합니다.

△주의  
책 모서리에 다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